

진흥회 동정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성황리에 폐막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국내외 13개국 106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려 총 관람객 3만3천여명에 수출 상담실적 2억6천만불의 성과를 올리며 성황리에 폐막됐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중공업, LG산전 등 국내 주요 중전기 업체 및 단체 94개사를 비롯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12개국 12개사가 대거 참가하여 국내외 첨단 전기공업 제품과 최근 개발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 금융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체가 내수 부진을 탈피, 수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호기로 보고 자체 기술 개발한 첨단 제품 및 최신 기기들을 총망라 선보임으로써 더욱 내실있는 전시회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완료한 중소기업 제품 및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제품을 별도로 전시하는 『특별 홍보 센터』를 마련, 관람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기간 동안에는 일본의 동경, 중부, 관서전력

등 『일본 전력 기자재 구매 촉진단』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기계행업분회(CCPIT)에서 『중국 전기공업 교류 촉진단』이 방한, 전시회를 관람하고 관련업체와 수출 상담회를 가진 것을 비롯 관심 품목 및 업체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對日, 對中 교류 및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지원 하에 세계 40개국에서 전기관련 해외 바이어 292명이 특별 내한하여 수출상담회 및 카탈로그 전시회를 갖는 등 이번 전시기간 동안 『SIEF』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약 3천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시장에 찾아 수출상담을 벌임으로써 약 2억6천만 불 이상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최근 내수 부진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전기산업계에 수출 활력을 불어넣고 중전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부도를 당한 신아전기공업, 대봉전선 등 3개 업체가 참가하여 기업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수출상담을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한 재생의 지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일본 7대 전력회사 초청 구매상담회 성과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연간 12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전력기자재 수출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전력회사와 국내 공급업체를 동시에 대거 초청해,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전력기자재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의 7대 전력회사(동경, 중부, 관서, 중국, 북해도, 구주, 오키나와 전력)와 칸사이테크 등 공급업체 책임자 등 13개사 26명의 일본측과 한국중공업, LG전선 등 70여개 국내업체가 참가해 500여건의 상담을 벌여 5천만불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서의 주요 상담품목은 차단기 스위치, 케이블, 고압선 전선, 초고압 케이블, GCB 차단기, VCB차단기, 개폐기, 변압기 등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높아 향후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목됐다.

일본 전력회사(총 10개사)의 해외조달규모는 총 12억500만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동경전력이 4억3,600만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부전력이 2억9천만달러, 관서전력이 1억4천800만달러 순으로 되어 있어 이번 개최되는 구매상담회가 우리나라 전력기자재의 대일 수출확대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90년대 초부터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공급을 위해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특히 코스트 절감을 위한 해외로 부터의 자재조달을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

최근 해외로 부터 저렴한 전력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조달 희망품목을 게재하는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신규 공급업체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전문 수출상담회 성공리 개최

전기·전자제품만의 대규모 전문 수출상담회가 국내 최초로 개최됐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국내 전기전자 업계의 내수부진 탈출과 수출촉진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5월 18일, 무역센터 KOTRA 상담실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대규모 전기전자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세계 40개국 292명의 바이어가 초청됐으며, 국내 전기전자 업체와 약 2천건에 달하는 구매상담을 벌여, 1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번 상담회는 단일품목 수출상담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최근 원화의 환율상승으로 우리 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업체들의 수출확대 욕구 만큼이나 해외 바이어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바이어들의 품목은 발전기, 변압기, 개폐기 등 중전기 제품에서부터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집적회로 등 전자제품 및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특히 전기제품은 차단기, 변압기, 안정기 등 산업용 전기기기 위주로, 전자제품은 일회용 카메라, TV 등 가정용 전자제품 위주로 활발

한 상담이 진행됐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상담회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3일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상담회 참가 바이어의 대부분이 참가토록 함으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기산업분야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전기공업 신기술개발 및 수출유공자 포상

그동안 수출 및 기술개발 등에서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이 지난 6월 9일 무역클럽에서 개

최되었다. 수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포 상 구 분 |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5명) | 시 영 중 전 기 (주) | 대표이사 | 임 수택 |
| | 대 연 전 자 (주) | 대표이사 | 이 창근 |
| | (주) 우 진 정 공 | 대표이사 | 임인걸 |
| | LG 산 전 (주) | 부 장 | 고희정 |
| | 한 국 전 력 공 사 | 부 장 | 허업 |
| 중소기업청장 표창 (5명) | 영화산업전기제작소 | 대표이사 | 공호영 |
| | 아 시 아 계 전 (주) | 대표이사 | 이병설 |
| | (주) 동 남 물 산 | 연구소장 | 신현록 |
| | 서 울 분 전 반 | 부 장 | 황성술 |
| | (주) 광 명 기 전 | 차 장 | 오세철 |
| 한 국 전 기 공 업 진 흥 회 장 표 창 (9명) | 남 성 기 업 사 | 대표이사 | 이종성 |
| | 오 성 기 전 (주) | 상무이사 | 문희봉 |
| | (주) 광 명 기 전 | 과 장 | 이상권 |
| | (주) 진 광 | 차 장 | 김희기 |
| | 동 미 전 기 공 업 (주) | 차 장 | 황인순 |
| | 동진모타공업(주) | 과 장 | 우홍수 |
| | 성 원 전 기 | 과 장 | 박정범 |
| | KD 파 워 (주) | 대표이사 | 박기주 |
| 진 흥 회 | 대 리 | 이창수 | |